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체
기다려 있는 시민건강강좌

심근경색증 바로알기

6~12시간내 치료 받아야 회복 가능

주변에서 보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거나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이들을 보게 된다.

이처럼 심근경색증은 갑작스레 찾아와 사람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심근경색(心筋梗塞)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혈전(피백)에 의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질환을 말한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차이

협심증은 심장 근육이 일시적인 빙혈상태에 빠졌지만 죽지는 않은 상태인 반면,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이 죽은 상태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휴식을 취하면 심장근육의 산소부족은 호전되고 가슴 통증도 사라진다.

그러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일부 심장 근육은 영구적으로 죽게 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된 심장은 효과적으로 펌프작용을 하지 못해 급사에 이르거나 점차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

◇심근경색증의 위험과 증상

심근경색증은 발생하는 질병 중 사망률이 높아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약 40%가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병원에 도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률이 10% 정도가 된다.

이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많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평소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증(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죽을 것 같은' 매우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표현한다. 환자들은 가슴통증의 양상을 '가슴을 짓누른다', '쥐어짜는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건강강좌에서 심근경색증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30분 이상 가슴통증 의심…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

고혈압·고지혈증 환자 위험… 담배 끊고 생선 섭취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

▲담배를 반드시 끊는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간다.

듯하다', '칼로 떠나는 듯하다', '뼈 깨지는 것 같다' 등으로 표현한다.

심근경색증일 경우 가슴통증은 안정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30분 이상 지속된다. 이에 비해 협심증에 의한 가슴통증은 수 분 이내에 소실되며, 활동하거나 운동할 때만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슴통증 이외에 식은땀, 구역, 구토를 호소하기도 하며 통증이 팔이 나 어깨, 목, 턱까지 번지기도 한다.

◇심근경색증 발생시 대처방법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이어지면 지체없이 119 또는 1339에 도움을 요청해 종합병원 응급실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혀 밑에 넣거나 뿌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있

으면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한 후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5분 간격으로 2차례 더 사용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은 가슴통증이 생긴 후 빨리 도착할수록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가슴통증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만 심장의 괴사를 막을 수 있으며,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심장 근육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심근경색증은 아주 특징적인 심전도 변화가 일어나며, 심전도의 변화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혈액검사로 심장근육의 괴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심장 초음파나 핵의학 검사, 심장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을 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심근경색 환자가 가슴통증 발생 후 12시간 이내, 특히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관상동맥을 다시 뚫어서 심장근육이 완전히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심장의 펌프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서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심근경색증의 성공적인 치료의 첫 단계는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응급실)에 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

■취임 1주년 맞은 화순전남대병원 국훈 원장

“글로벌 경쟁력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암수술 실적과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글로벌 의료서비스 인증, 상급종합병원 진입 등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최우수병원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훈(사진) 화순전남대병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며, 열정 넘치는 포부를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군 단위에 위치한 700병상의 대학병원이지만, 개원 8년 만에 암 수술건수와 의료서비스의 질은 서울 대형병원과 대등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질병치료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환자의 마음 까지 치유할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적인 입지는 여타 대학병원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은 6대암(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갑상샘암) 수술건수 지방 1위, 전국 5위를 차지했다. 서울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등이 2000병상임을 감안하면 전국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절분야 특성화 역시 국내외의



6대암 수술건수 전국 5위

고관절 분야 세계적 수준

메디컬센터 해외환자 유치

환경을 조성, 2010년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JCI 인증을 획득해 국제 수준의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재인증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제의료시장의 최강자로 도약하려는 부푼 꿈도 꾸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첨단의학 연구·신의료기술 개발, 국제적 학술활동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그 일환으로 독일 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유치를 확정지었으며, 내년 말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가 완공되면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이 됨으로써 연구 중심병원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국훈 원장은 “JCI 인증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으로 병원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며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최고의 첨단 의료 산실로 각광받기 위해 몇 배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국제진료기준에 맞는 의료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고관절분야는 해외의사들이 배우러 온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농촌을 배후로 하고 있어, 노인 대상 관절분야 특성화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화순전남대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대열에 신규 진입했다.

관절분야 특성화 역시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고관절분야는 해외의사들이 배우러 온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농촌을 배후로 하고 있어, 노인 대상 관절분야 특성화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화순전남대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대열에 신규 진입했다.

진찰료 경감은 외래 진료인 경우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제

공활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동네병원에서 치료하세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본인부담금 30%→20%로 줄어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1일부터 시행됐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래성(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고혈압’과 ‘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안내를 받기 원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med.nhic.or.kr)에 정보마당(<http://med.nhic.or.kr>)에서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효성공인중개사
공장·창고 전문

공장 임대

★ 하남공단 ★

① 80평 : 전기 60kW, 호이스트5t
보증금 1,500만 / 월 170만원

② 250평 : 전기 300kW, 호이스트5t
보증금 5,000만 / 월 450만(분할가)

★ 평동공단 ★

① 120평 : 전기 100kW, 호이스트3t(신축)
대로코너, 보 2,000만 / 월 220만

★ 본촌공단 ★

① 100평 : 대로변코너, 신축
보 3,000만 / 월 230만

★ 물류창고 ★

① 293평 : 하남공단 보 5천만/월 450만

② 100평 : 본촌공단 보 2천/월 220만(신축)

★ 공장매매 ★

① 본촌공단 : 대923/건500평 호이스트3t
매매가 13억5천만(최근건물)

★ 물류창고 부지매매(금매) ★

① 양산동 25m대로변, 200,300평당 160만

② 신인동 10m대로변, 280평 190만

T. 062) 521-6024 H. 011-602-4207 F. 521-6026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 연제동, 본촌동, 신운동, 용진동 일대 부동산전문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자이 옆코너 대지: 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3000세대, 용진동 인근3000세대상권

체인음식점, 병원, 교육 등적합 평당: 300만

양산택지지구토지매매

본촌동원룸부지 300여평 평당: 160만

연제동이파트·정문앞도로변 상가지: 150평당: 250만

본촌동이파트·중학교앞도로변: 100평당: 280만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 양산초·중·고등학교 인근지역

양산동, 양산초등학교 인근지역

단독매물

장성군 북이면 임야: 13,500평 평당: 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 700평당: 130만

용길동지연지역: 900평당: 130만

시외매도물건

장성